

연중 제22주일

제1독서 : 신명 4,1-2.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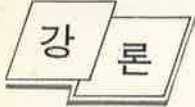
제2독서 : 야고 1,17-18,21b-22,27

복 음 : 마르 7,1-8,14-15,21-23

순정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마르 7,15).



영똥한 짓들



박 창 신 신부 / 효자우전 천주교회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완성(마태 5,17)하러 오신 예수는 유다의 전통을 고집하는 당신의 반대자들에게 영똥한 짓만 하고 있는 위선자들과 경고하고 있다.

원래 야훼 하느님은 유다 민족을 다른 민족과 달리 위대한 민족(신명 4,6)이라 했다. 야훼는 이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시키며, 빈부의 차이가 없고, 지배하지 않는 '평등한 백성'으로 체험시킨 뒤, 시나이산에서 당신과 계약을 맺으셨다. 약자들을 등쳐먹지 않고, 함께 사는 위대한 민족이 되도록 계약을 맺으셨다. 그리하여 이들은 추수 후 이삭을 줍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으며 안식년과 회년을 지키며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과 계명을 지키는 슬기롭고 지혜있는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민족은 점점 줄부가 되기 시작했다. 지켜야 할 계약을 유보하므로 빈부의 차이가 생겨 지배 세력이 생겼으며, 이들이 백성을 억압하므로 계약을 어겼다. 오히려 계약을 지키기보다는 정결례 같은 영똥한 규정을 만들어 지키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본질을 버린 영똥한 짓들이 된 것이다.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묶인 사람에게 해방을 알리고, 눈먼 사람은 보게 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며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음(루가 4, 18-19)을 권위있게 가르치셨다. 예수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제국의 식민지였으므로 못 먹고, 병들며, 자기 권리를 잃어버린 착취대상의 군중이 많았다. 설상가상으로 민족의 지배자들인 원로, 대사제, 율법학자들은 희망을 잃은 자기의 민족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억압과 착취의 반민족세력이 되어 영똥한 규정을 강요하는 위선자들이 되었다.

우리 이 시대를 한번 보자.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 한반도의 모습은 어떤가. 외세에 의존하여 모든 분야에서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 외세와 독재자들은 함께 민족 내부를 골골히 분열시켰다. 외세와 권력자들은 개인의 능력과 욕심, 편리와 경쟁을 강요하는 주변환경을 만들어 이웃간을, 계층간을, 동서를 갈라 놓았다. 그리고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 보안법이 있어 북한 동포와 농민, 노동자들을 돕는 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농촌은 이미 양로원이 됐고, 노동의 현장은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됐으며, 자연은 공해로 가득 차게 됐다. 교육은 반민족적이며, 민족 대대로 이어온 공동체 문화는 잃은지 오래되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와 냉소주의가 팽배해 있다. 한마디로 모든 분야에서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럴 때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다만 하느님과 영생만을 바라보는 관념과 이원적 신앙에 빠져 생활과 신앙을 분리하고, 세상을 구하지 못하는 영똥한 짓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깨끗한 각오



정인섭(안드레아)

10년 전 겨울, 눈이 소복하게 내려 쌓인 길로 방금 세례성사를 받은 나는 천사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집을 향하고 있었다.

그 영세식 때, 이마에 물이 흐르는 순간 마음속으로 고이던 어떤 각오를 지금껏 간직해오고 있는 것은 그때 그 마음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순진무구한 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부끄럽지만 그 순간의 각오는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였다.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의 참다운 뜻은 그후에 조금씩 알아졌지만 진정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바른 말이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내 생활은 하나님의 은총의 덕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도 힘든 노역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가는 추세인데,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건 또 얼마나 복잡한 댓가를 치러야 하는 일일까?

인류 역사 어느 한쪽인들 모두가 '현대'가 아니었을 까만, 오늘날처럼 다원적인 발달로 눈코 뜰 새가 없이 분주한 세상에서, 더구나 인간중심의 세속주의의 센 조류에 휘말려 있는 속에서 순교는 그만두고라도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생활만이라도 정신차려 지켜나가기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늘 시달리는 비신앙적(비인간적) 유희거리들의 회오리바람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이 어찌면 연옥 고통이랄 수는 없을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랑의 실천도 전투적인 자세로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언뜻언뜻 발견하게 된다. 마더 테레사의 말씀이 실감이 나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자비'를 의무적으로만 해나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웃(보이는 그리스도)을 사랑해야 자신의 신원이 바르게 드러나기 때문에 상상으로건 행동이나 말로건 사랑을 베풀게 되지만 20세기 말의 사랑은 너무 혼란하다는 것이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주시ပါ" (로마 7, 24-25).

달마다 말게 적은 액수의 돈을 소녀가장 후원금으로

은행에 넣다가 어느 때부터인지 거의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의 보탬이 될 수 있는가 따져볼 생각은 이제 일어나지도 않게 되기도 하고, 교회 발행 신문을 짜증을 내며 읽다가 집어던지고 나서야 그 짜증의 이유가 내 개인적인 취미나 욕심에 안 맞아서라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가 불쌍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말이다, 내 이런 증상이 예사 일이 아닌 것은 내가 어엿한 그리스도 신비체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이 아닌가 말이다.

이제 9월, 또 한해의 주기가 돌아와 순교자 성월이 되었다.

나는 이 가을의 시작을 '첫각오'와 함께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더 순진하고 더 사람답게 한번 해내보고 싶다.

고백성사도 잘 준비해서 하고 영성체는 처음인듯 마지막인듯, 성서는 내 아침밥으로 하고 이웃을 대하기들이 세상에서 백년 만에 만난 사람인듯 해보겠다. 내 직업은 평신도 사도직에 대하여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에서 가르친 대로 지상생활의 보화를 복음의 씨앗을 싹틔우는 데 사용하도록 이끌어가 보겠다.

그러나 스스로 잊지 말 것은 이 세상 이 사회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 본말을 바꾸고 수단과 목적을 뒤섞지 말 일이다.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어색하지 않기까지 한번 이 가을을 살아나가 보기로 한다.

숲정이 산책



축! 100년사 발간

주님이 계시기에

한가닥 그분 계심에

한 동 선(이나시오)/신태인 성당 신기 공소



9월은 순교자 성월!

눈이 시리도록 맑은 초가을의 하늘을 머리에 이고 울긋불긋한 옷차림에 구슬땀을 흘리며 성지를 찾는 이들의 모습이 사뭇 성스럽다. 온몸으로 신앙을 증거하며 말없이 숨겨간 교구 내의 수많은 순교자 중 성인품에 오른 분은 7분, 그중에 한원서(요셉) 성인의 증손으로 묵묵히 성교의 도리를 다하며 신앙인의 후예답게 살아가는 분이 있다. 바로 한동선(이나시오·62세) 씨가 그분.

신태인 성당 소속 신기 공소에서 굶은 일,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해내는 말없는 일꾼. 회장이라는 명함 한번 제 몫으로 삼아보지 못한 외딴의 무언행동(無言行動) 신앙을 신조로 하여 살아온 그는 6·25전쟁시 순창 내동 공소의 회장으로 계시던 할아버지가 이곳 신기로 피난오면서 여기에 뿌리를 내렸다. 동네 공소신자들이 거의 6·25때 피난온 교우들이기에 그들의 신심은 매우 깊은 편이다. 그후 공산군을 피해 토굴생활을 하던 후유증으로 조부,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본인은 군대에 자원, 7년여의 군생활 끝에 상사로 제대했다. 이때 부인 박발바라 씨와 결혼, 슬하에 1남7녀를 둔 대가족의 가장이 되었다. 넉넉치 못한 생활에 그에게 닥친 우환은 사랑하는 부인과

한 자녀의 오랜 병치레였다. 이들의 병구완으로 힘겹게 불러 왔던 그나마의 재산을 조금씩 줄여갈 때 그의 가슴은 허무와 야속함으로 생의 의미마저 상실케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주님께 매달려 애원하고 기도하며 믿고 의지할 분은 한 분뿐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나갔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즐거이 지고 가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젊었을 적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 홀로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하며 겸연쩍게 웃는 그의 모습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소년의 해맑은 모습을 연상케 한다. 천주학생이의 자식이기에 이리저리 정붙이지 못하고 떠돌며 한가닥 그분 계심에 온 희망을 걸었던 그의 일생이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성인의 후손다운 삶에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그는 “편히 앉아서 열심히 바치는 기도보다는 내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생활이 참신앙 생활이 아니냐”고 힘주어 말한다. 옅은 셔츠바람으로 황금빛 넘실거릴 들판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의 생애만큼이나 고결해보인다.

신자들의 소리

순교는 과거의 유산인가?

김 명 옥(아녜스)/전동 성당

한창 사춘기를 겪던 시절 교리를 받으면서 만난 것이 순교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이었다.

오직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죽음을 마다않던 순교자들의 모습은 아직 신앙생활의 뜻나기인 나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

이런 순교자들의 깨끗한 믿음을 믿거름으로 한 나의 신앙생활도 어느덧 15년이 돼가고 있다.

가끔씩 내 초기 믿음의 싹을 키워주었던 순교자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충실한가를 돌아볼 때가 있다.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오늘날엔 순교는 과거의 유산쯤으로 생각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느 시대이든 종교적 순교는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날이야말로 순교자적 삶은 더욱 절실한 때라고 생각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의를 고발하고, 옳은 것을 외치다 수인이 된 이 시대의 순교자들은 박해를 감내하고 있다.

또한 비록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옳은 것을 추구하고,

빠르게 살기 위한 신앙인으로서의 순교적 삶은 소중한 신앙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가족간의 갈등, 이웃과의 불화, 나아가 사회적 모순과 갈등 속에서, 그 문제를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옳은 일을 행할 때 바로 이 시대의 작은 순교는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

크고 작은 인간적 갈등, 어려움,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 얽힌 매듭을 풀려는 노력과 희생은 곧 하느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정신인 ‘순교자적 삶’일 것이다.

나날이 깊어가는 사회적 갈등과 무질서 속에서 삶의 삭막함과 황폐화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몫을 다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느님 말씀에 순명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리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할 때 바로 그곳에 하느님이 함께하시는 순교의 삶이 완성되고, 하느님의 사랑이 현존할 것이다.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①

왜 순교를

어느 젊은이와의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순교는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다가 그를 중오하는 폭력에 의해 죽음을 당한 일을 말하는데, 사실 로마의 250년 박해나 한국의 100년 박해나 이 모두가 집권자들의 통치 질서에 의한 희생이 아니었냐는 것이다. 결국 순교는 종교생활이 통제받던 시대에 발생한 정치적 사건이었다고 여겨져서, 신앙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종교행사를 정부의 협조를 받으며 치루고 있는 자유천지에서는 순교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지도 않고 더구나 순교를 강조한다는 것은 웬지 때 맞지 않는 구시대의 언어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젊은이의 이야기는 더 발전했다. 우리가 순교자를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지만 실인즉 박해자가 없었다면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었겠나면서 박해자를 오히려 시혜자(施惠者)로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자기 자신도 순교자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건 참혹하게 죽은 자들에게 갖는 인간적인 감정이고, 순교자들이 겪은 무자비한 잔인성과 영웅적인 용기의 이야기 역시 미담으로 일시적인 감동은 받을지언정 신앙생활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103위 성인은 자기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분들이라고 했다.

이야기는 신앙교육에까지 이르렀다. 교회에서는 더러 순교정신을 강조하며 고통과 근심과 번민, 죽음 등에 대결하여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희생, 절제, 극기의 생활을 훈련시키려 하고 있지만 현대인들은 그런 영웅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신앙교육이 실효를 거두려면 사람들의 요구에 만족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요새 사람치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신앙인들의 심리 저변에는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을 축복의 징표로 믿고 있는데 순교정신은 현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앙교육이 성공하려면 사회 풍조에 맞게 유쾌하고 평안하고 환상적이고 분위기있는 교육이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교정신을 모르더라도 신앙의



신앙을 지키기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했던 한국교회의 순교자들

행복을 얻는 길이 오늘의 교회 현실에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만은 그럴듯한 말이었다. 이 젊은이의 소견이 현실을 관찰하면서 나온 발상이므로 한 젊은이의 부질없는 사견(私見)이라고 일축해버릴 수 없는 것이다. 아뭏든 순교가 감상적인 과거의 사건으로, 또는 시효가 지난 약이 되지 않으려면 순교에 대한 설득력있는 이해가 선결되어야 하겠다.

그러면 먼저 가려야 할 것은 순교를 지배하는 주체가 과연 누구이냐이다. 순교를 지배한 주체가 폭력이나 아니면 폭력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신앙이냐가 먼저 가려져야만 순교가 흘러간 역사에 묻히거나 또는 현재에도 생명력이 있는 신앙으로 필요한지 알게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자명한 것은 폭력이 없는 곳에도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현실의 지극히 일부에서나마 순교와 순교정신에 미온적인 현상이 있더라도 교회에서는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순교를 완덕(完德)의 최상급으로 강조하고 있고, 순교정신은 그리스도교적인 모든 삶의 완전함과 완성과 성덕(聖德)이라고 강조해오고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순교와 순교정신을 신앙의 최우위에 두고 높이

신속배달
한성가스

대표 최영혜(헬레나)
이리시 남중동 국토건설국 앞
☎ 855-1323, 855-1324

공인 중개사
송영은(돈보스코) 사무소

☎ (0652) 87-0088
(자택) 83-0087, 83-0088
호출기 012-681-7220
토지, 임야, 주택, 상가, APT
전세 매매 알선

생활속에 동화를 불러냅니다
원목가구 · 생활용품

미지트 중앙동대리점

관동로 진선이 꽃집 옆
☎ 84-8725
범덕배(口門)

성원인테리어총판

■특수보조기 ■자동건조대 ■수족판
■인테리어 선반 ■원목·철재가구

서원식(야고보)
고선규(미카엘라)
육지구 북부시장 내
※주부회원 모집
주·야 78-1941
배 배 012-682-3111

말하는가?

평가하는가.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명료하다. 그리스도의 신앙과 순교자의 신앙이 유사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순교자의 생명이 일치되고 있다는데 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첫째가는 계명은 온 마음, 온 영혼, 온 정신, 온 힘으로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실천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그분은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신을 다 쏟고 영혼을 다 바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셨다. 전심전력을 다하고 생명까지 온통 바치지 않는 사랑은 거짓이다. 십자가의 비극성은 극단적인 사랑의 증표였다. 순교자는 예수님의 신앙을 사실 그대로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에 실제로 참여한 것이다. 반쪽 사랑은 사랑일 수 없다는 사실을 1839년 전주의 순교자 김대권(베드로)의 신앙고백에서 들어본다. “매를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천주를 배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살과 뼈에 사무쳐 있어서 사지를 자르면 그 하나하나에 이 생각이 배어 있고, 뼈를 부수면 뼈 한조각 한조각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신뢰와 순종의 열정으로 죽음을 자유로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내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
하느님과
하나로 결합하려는
열망인 순교정신보다
온전한 사랑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결단과 선택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준비되었던 것이다. 이 교장의 순교자 이순이(루갈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누우며 앉으며 구하고 원하는 바 치명의 은혜라. 이 원이 가득하다”고 했다. 하느님과 하나로 결합하려는 열망인 순교정신보다 온전한 사랑이 또 어디 있겠는가.

순교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는 것, 그 이상도 아니다. 순교자는 신앙의 완전한 모범이다. 교종 요한 바오로 2세는 시성식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각성시켰다. “그분들은 혈통으로나 언어로나 문화로나 여러분의 조상입니다. 아울러 그분들은 피로써 증거한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부모들이십니다.” 우리는 확실히 그분들의 자녀들이다.

호남교회사 연구소장
김진소 신부

요심이 (943) 김병오



제주피정(피정및관광)안내

때 : 9월13일-15일, 9월23일-25일
9월28일-30일, 10월4일-6일
곳 : 복자수도회 제주피정의 집
문의 : (02)516-3404, 548-7095

순 꼬리로만 고평

‘개 시’
전주역전 한양모델하우스 뒷편
서 정 필(요 션)
김 형 식(마태오)
별미회관 ☎72-5801

정성을 다하는 조림식의 선구자

경일 조림식 건축

재무부령 254호 허가업체
본사73-1611 FAX75-0161 출장소85-1023
김종진(스테 파노) 김해선(레지미오)
김종선(레고리오) 김영애(루 비나)

주단·침구·훈수 전문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앞
☎ 84-7294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본과·연구과·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원자
타침
쇼식
일점

“가구의 평가”
장인가구 (민속공예)
옥돌칠기가구
남부지점 : 전주시 중앙동2가 가구거리
북부지점 : 전주시 태평동1가 전주중앙상가층61호.2층6호
TEL. 남부 88-9253 상거층 254-9525
상가2층 76-9151 하치층 82-5086
김성수·김미남(루시아)

뿌리를 찾아서

무주 성당

- 교우촌 신앙의 얼을 이어온 본당 -



무주 성당의 시작은 1866년 무주군 안성면 여우내에 일찌기 신자들이 모여 공소를 이룬데서 비롯된다. 전해지는 말로는 여러 산간에 숨어 살던 교우촌에 최양업 신부와 안돈이 신부가 공소를 순회하며 전례를 거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병인박해 이후 신자들은 잡혀가거나 사방으로 흩어져 자취를 감추었다가 1884년경 여우내, 숙구지 등에 다시 모여 화전을 일구면서 공소 공동체를 형성했으나 1900년경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생업을 찾아 타지로 진출해버렸다. 그후 1950년경에 이르러서야 금산 본당 관할 공소 4개가 발족되어 이 신자들을 모체로 하여 1956년 본

당으로 설정되었다. 임시로 공소 건물인 한옥 4칸을 개수하여 성당 겸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그해 12월 성당 건물을 지었고, 1965년에는 수녀원을, 1984년 3월에는 사제관을 각각 건립하였다. 그밖에도 여러 공소 건물의 신축이 활발하였으며, 본당 내에서는 사목협의회와 평신도 단체들을 조직하였고 레지오 마리아, 꾸리아, 꾸르실리스타 모임 등이 생겼다.

본당은 사목과 선교를 위한 노력으로 1956년 12월 장당에 유아원을 개원하여 이 지역 유아교육의 발판을 굳혔고 1973년 9월에는 이를 유치원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신자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산을 매입하여

그 일부를 개간하여 공소신자들에게 경작케 하였고, 편물·한복·양재학원을 개원하여 부녀자들에게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우물을 파서 식수난을 해결하고 농사의 젃줄이 되게 하였으며 신용협동조합을 발족시켜 본당 자산의 기초를 놓았고 교무금 배가운동, 농장 운영 등을 하면서 자립 본당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룩된 무주 성당은 마치 봉새가 나래 밑에 병아리를 품은 듯한 모습으로 지역 주민들의 복음화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명상의 자리

믿는 사람은

나는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
침묵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는 보다 더 위대한 분을 찾기 위해
나 자신을 버렸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떠나
그분을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믿기에
당신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사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 나는 심혈을
기울여 노력합니다.
성서는 드높은 산상에 올라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하느님은 그들 가까이에서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굳건한 바위 위에서 떠나면 곳을
바라보는 것보다 같사옵니다.
믿기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하늘의 은혜로
받사옵니다.

우리집

모범업소(조리사의 집)
박길섭 화(조기리아)
김성숙 (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 (중앙성당앞)
☎ 85-8848

샤넬안경원

이순구(도미니코)
정병채(실비아)
☎ 54-9525
이리역 원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신부 부케 전문점

진선미꽃집

이마리아
범디도
☎ 84-2628

구인

• 부부 함께 일하실 분(살림집 제공)
• 매일 서울 다닐 수 있는 기사분-1명
문의전화: (0652)221-0826
전주시 효자동2가 221-1
나성마을 가공업
나귀준(공사가)

교 구 소 식

❖ 사제성서연수회
 · 때 : 9월3일-5일
 · 곳 : 천호피정의 집

❖ 축! 견진
 · 때 : 9월7일 오후3시
 · 곳 : 장수 성당

❖ 축! 견진
 · 때 : 9월8일 오전10시30분
 · 곳 : 용안 성당

❖ 성서교실 개강(이리지구)
 · 때 : 9월4일(수) 오전10시· 저녁8시
 · 곳 : 신동 성당

❖ 예비 신학생 모임
 · 때 : 9월8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대상 : 중·고·대·일반

❖ 가톨릭 문우회 모임
 · 때 : 9월7일(토)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때 : 9월2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대상 : 사랑의 다리 회원과 사회복
 지활동을 후원코자 하는 분

❖ 여성연합회 월례미사
 · 때 : 9월2일(월)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 루갈다회 미사
 · 때 : 9월5일(목) 오후3시
 · 곳 : 치명자산

❖ 감사드립니다
 · 치명자산 성지개발 헌금 : 전주 연
 초제조창의 신자 단체인 '성화회'
 에서 538만원을 헌금으로 보내왔
 습니다.

❖ 한문교실 개강
 · 때 : 9월26일부터 매주 목요일
 10-11시
 · 곳 : 가톨릭센터
 · 회비 : 월 3,000원
 · 접수처 : 여성연합회(84-5290)
 · 강사 : 이저영 선생

❖ 평협 하반기 교육 계획
 · 때 : 10월5일-6일 본당 감사, 총무
 10월9일-10일 이리, 익산,
 김제, 정읍, 임순남, 무진장
 지구 사목회 임원
 11월30일-12월1일 애령분과
 부장, 차장
 12월7일-8일 공소회장
 12월14일-15일 남전주,북전
 주,군옥지구,사목회 임원
 · 곳 : 천호 피정의 집

성소모임

❖ 인보성체수도회
 · 때 : 9월8일 오후1시
 · 곳 : 본원 (0652) 84-3231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 - 관망에서 참여를 촉구한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 인간은 지성, 기억력, 예측능력, 종교 등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곤 했다. 지금은 새로운 척도에서 동물과 다른 점을 표시하고 있다. 즉 인간의 자연에 대한 영향이다. 동물 자신의 능력에 맡긴다면 앞으로 몇 만년이 지나도 산성비, '오존층 감소, 온실효과, 핵폭탄, 독성폐기물 등을 생각해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한 세기도 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해냈다. 이 한 세기 동안에 망쳐버린 뛰어난 우리 인간의 머리로도 이것들을 재회복시키려면 얼마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아무도 모른다.

각종 매스컴에서 실재없이 외쳐대는 소리에 우리는 이제 무신경해진 것인가?

이제는 단지 동물처럼 자연의 소리, 자연의 요구에 순종해야 할 때다. 자, 이제 구경만 하지는 말자!

· 인테리어 설계시공 · 건축기획 · CIP
 · 디스플레이 · 투시도 · 토털디자인

DESIGN GROUP 이리모드

박 주 윤(마르셀라)
 전주시원산구효자동1가594-1
 ☎ 223-2852 · 223-2853 · 87-2560
 (전화상담환영)

각종 인쇄, 명함, 코팅, 스티카 판촉물, 개업기념품 일체 (제털이, 성냥, 볼펜 등)

대 일 인 쇄 소

조 대 일(미카엘),
 백 춘 자(레지나)
 이리시 남중동1가 35-6(남파. 교)
 ☎ 855-9636

주부시원모집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리라."

김 금 주(벨라도)
 (주)계몽사/
 종로회원 남전주 지사
 ☎ 88-8027 야간71-5827

개업 선물, 행사용품, 광고성냥
 위생 젓가락, 상패, 트로피

노 령 기 획

(비사표 광고 전주대리점)

김 배 근(스테파노)
 김 현 필(베 드로)
 ☎ 82-6224

꿈나무 골든베어

(0세~13세까지)
 유아복 아동복

광진목화 사거리
 이 성 기(세베리노)
 정 성 옥(리드비나)
 ☎ 224-8929

가스보일러 · 가스렌지 ·
 온수기등 가스기구 시설

제 일 가 스 상 사

조 윤 진(클레멘스)
 김 점 순(엘리사벳)
 ☎ 222-4832
 222-4611, 6255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승 남

1. 성탄반 예비자 모집 : 예비신자 인도에 전력을 다합니다.
 2. 장우회 창립총회 : 8일 공식미사 후 3. 자모회 야유회 : 3일 미사후, 장소-소양생수산장, 회비-2000원 4. 성심회 월례회 : 4일 어머니미사 후 5. 성시간 : 5일 후7시30분 6. 반희장모임 : 5일 전10시30분 7. 월 사목회 : 6일 후8시 8. 주일학교 개학 : 오늘 부터. 9. 미사 시작 10분전에 오셔서 성가연습을합니다. 10. 범자방문 : 사무실에 미리 신청하세요 11. 울드레아 : 오늘 후8시 12. 주일헌금과 교무금납부에 좀더 많은 관심을바랍니다. 13. 금주철소 : 인후14, 15, 16만 차주철소 : 신우1, 2만
- ☐ 지난주 봉헌금 : ☐ 교무금 : 1, 134, 5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밀 군

1. 사목회 : 오늘 저녁미사 후 2. 대건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구역분과회 : 3일 오전10시 4. 밀알회 : 4일 오후6 : 30분
 5. 성체강복 : 5일 저녁미사 후 6. 자모회 : 5일 오전10시
 7. 영세자 첫 고백성사 : 7일 오후4 : 30분
 8. 꾸리아 : 8일 오후2시 9. 오셀회 : 8일 공식미사 후
 10. 청년회 : 8일 저녁미사 후
 11. 남전주지구 어린이(초등부) 체육대회 : 9월8일 성심학교 운동장 금주전례 해설-임은희 독서-신태섭씨부부 봉헌-정중순 씨가족 차주전례 해설-김영수 독서-김현덕씨부부 봉헌-황유현씨가족 성담청소(7일) : 황금궁전Pr. 성모성년Pr
- ☐ 지난주 봉헌금 : 540, 930원 ☐ 교무금 : 997, 6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중 석

-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1. 꾸리아 :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 7일(토) 저녁미사 후
 3. 성서읽기 : I 고린도 9장~16장
 4. 학생회 가을소풍 : 다음주(공기부락)
 5. 청소봉사 : 천주의 모후Pr
 6. 교무금 납부의날 : 매월 첫주(오늘)
 7. 금주전례 : 해설-유만순 독서①최원규 ②정미희 봉헌-김성수, 노기식씨부부 차주전례 : 해설-김영신 독서①김봉길 ②김금자 봉헌-서정식, 안동기씨부부 ☐ 교무금 : 227, 000원
 8. 남전주지구 주일학교 체육대회 다음주(성심학교).
 9. 예비자교리 : 다음주(8일) 공식미사후 개강식
 10. 성체강복 : 5(목) 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 284, 38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오늘은 연중제22주일 ! 9월은 순교자성월입니다.**
1. 회의 : ①반장회-오늘 공식미사후 ②사목회-9월4일(수)오후8시 ③자모회-9월5일(목)12시 ④프란치스코3회-다음주일오후2시 2. 모임 : ①울드레아-다음주주요일(9월11일) 저녁미사 후 3. 알림 : ①예비자를 인도합니다-교리시간 매주일 공식미사 후 (성인반)매주일 오전9시(학생반) ②주일학교개강 : 9월7일토요일부터(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바람) ③9월22일(일)추석명절입니다. 조상님들을 위한 위령합동미사에 신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④본당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부탁합니다.
- ☐ 지난주 봉헌금 : 459, 050원 ☐ 교무금 : 360, 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꾸리아 : 공식미사 후
 2. 구역장·반장모임 : 2일(화)오후4시
 3. 구역방문 : 6일(금)오후2시-금요일 A.P.T 1.2.3동7일(토)오전 9시30분-금요일 8.9.10동
 4. 자모회 : 6일(금)어머니미사 후
 5. 통신교리이수자 사무실 접수바람
 6. 초등부 체육대회 : 8일(일) 오전10시-오후4시 성심여고(점심, 미사준비, 뚝자리)
 7. 청소봉사 : 서완산동 1가 동, 서편
- ☐ 지난주 봉헌금 : 560, 630원 ☐ 교무금 : 718, 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 축 ! 「전동100년」기념화보출판 : 권당20, 000원씩.**
1. 울드레아 : 오늘 공식미사 후(환영식 겸함)
 2. 재속글라리형제회 : 오늘오후1시30분.
 3. 구역봉사자 모임 : 오늘저녁7시30분
 4. 성가집회 : 2일(월) 오전11시. 자모회총회-9월15일로 연기. 사목회-9월15일로 연기.
 5. 100주년 기념화보집 출판기념회 : 2일 오후6시, 소강당.
 6. 반기도회 : 3일~6일. 반미사 : 3일-전동7반.
 7. 성체강복및조배 : 5일(목) 오전10시. 8. 범자영성체 : 4일-동교8반 5일-동남4반 9. 꾸리아 성지순례 : 8일 8시출발 황새바위 갈매꽃 10. 남전주지구 어린이 주일학교 체육대회 : 8일 성심학교 운동장 회비 : 임천원. 본당3시 어린이 미사는 없습니다.
- ☐ 지난주 봉헌금 : 1, 596, 960원 ☐ 교무금 :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탁

1. 성령 세미나 : 2일~7일, 매일 후8시, 건진자는 의무참석.
 2. 학생 견진교리 : 7일-후5시, 8일-전10시, 빠짐없이 참석.
 3. 신일아파트 가정방문 : 6일 9시부터
 4. 사목회 상임위원회 : 7일 후5시,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5. 유아세례 : 7일 후2시30분, 대상자는 신청서 미리 접수바람.
 6. 예비자 교리 : 이번주 부터 결석자는 세례에서 제외됩니다.
 7. 성체강복 : 5일 성령체신 강연회 후,
 8. 청년회 : 8일 후8시
 9. 성가신합 출장소 축성식 : 2일 전11시, 문의-88~8123
 10. 구역반회 월례회 : 3일 전10시30분. 성심부녀회 : 4일 12시
- ☐ 지난주 봉헌금 : 699, 870원 ☐ 교무금 : 612, 500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사목회 : 주일미사 후
 2. 구역반장 월례회 : 3일(화)오후8시30분
 3. 성모회·청년회 : 다음주일미사 후
 4. 환영합니다 : 꾸르실로 여성35차-김강(엘리사벳), 최정순(카타리나) M.E 주말 35차-정희중, 나경자(레지나)
* M.E 꾸르실로 교육을 받으신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십시오.
 5. 청소봉사 : 은총의 증개자Pr
 6. 금주전례 : 김용부 독서·봉헌 : 이현희 · 한병갑 차주전례 : 김옥희 독서·봉헌 : 김 강·정 결
- ☐ 지난주 봉헌금 : ☐ 교무금 :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종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1. 순교자반 1일 피정 : 오늘 09-17시(교육관) ※ 집중교리-화. 금 오후7시(교육관) ※ 영세식-9.8(일) 오후4시 미사중에
2. 본당의날 행사 : 9.15(일) 09 : 30 - 오후3시
3. 축 길은 : 신랑-장방환 신부-최복덕(가타리나) 오후1시 4. 모임안내 : ①사목회-금 오후8시 ②구역봉사자모임-수10 : 30 ③가리마스-금 후3시 ④안나회-오늘11시 미사 후 5. 환영합니다-새로 이사온 교우들(사무실에 접수 바람) 교적을 잘 관리합니다. ☐ 교무금 : 2, 003, 000원
6. 수요 성서교실 ①수(진)10 : 30(김이사벨라수녀님) ②. 후7 : 30(본당신부님) ③후7 : 30(보좌신부님 ※ 우리 모두 성서공부를 열심히 하여 복음 전파에 앞장섭시다. 7. 본당을 위한 2차헌금 409, 790원 협조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 048, 97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찬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후 두

- ※ 9월은 순교자의 달입니다.**
1. 사목회 : 저녁미사 후 2. 꾸리아회의 : 공식미사 후
 3. 여성분과회의 : 6일(금)10시미사 4. 안심리공소미사 : 6일(금)저녁
 5. 제대회 : 9월2일(월)9시미사 후
 6. 베소라부부성서반개강 : 9월4일(수)저녁미사 후
- * 차주모임울드레아 * 신축헌금봉헌액 : 1, 330, 000원**
금주전례해설 임장수 독서①문병식 ②구문순 기도 정 원희, 이인희 차주전례해설 강진상 독서①박윤엽 ②백인자 기도 표 근중, 김영자
- ☐ 지난주 봉헌금 : 787, 790원 ☐ 교무금 : 1, 819, 000원
☐ 2차헌금 : 491, 230원